

축 사(안)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승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따사로움으로 새싹을 돋우고, 뜨거운 별으로 열매를 여물게 하며, 이제 청명한 기운으로 결실을 이루는 만추지절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에도 변화무쌍하고도 역동적인 삶의 움직임이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그야말로 진리 그 자체임을 정진과 전법을 통한 성취로써 깨닫게 됩니다.

법회가 끝날 때마다 우리는 중생을 다 건지겠다고 다짐하고, 번뇌를 모두 끊겠다고 다짐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두 배우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불도를 다 이루어 성불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 네 가지 커다란 서원(四弘誓願)은 불자로서 가져야 할 가장 굳은 약속이자 수행정진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팔만사천의 가르침을 펼치셨지만 완전히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깨달음에 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지간히 공부해서는 그 뜻을 알고 깨닫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불교관음종이 매년 가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학문적으로 조명하는 매우 의미있는 공덕이라 하겠습니다.

사홍서원의 세 번째 서원인 법문무량서원학(法門無量誓願學), 즉 광대무변한 불타의 가르침을 모두 배워 깨달겠다는 맹세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는 것은 높이 평가하고 마땅히 권장해야 할 일입니다.

더구나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불자들만의 교리가 아닌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매김한 지 이미 오래전입니다. 이러한 보편적 가치가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되어 세상이 평화롭고, 삶의 길잡이가 되어준다면 더없이 값진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학술대회가 불교계는 물론 사회와 시민속에서 향기롭게 회향하도록 진력을 다하시는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스님께 감사드리며, 소중한 마음으로 참여하신 교수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불자는 물론 많은 시민들도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바라며, 지혜로움과 너그러움이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불기2558(2014)년 10월 27일